

GS칼텍스, 고도화 처리능력 1위

제3 중질유 분해시설 본격 가동 ... 고도화능력 21만5000배럴 달성

GS칼텍스는 고도화처리 능력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GS칼텍스(대표 허동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6000억원을 투입해 2008년 10월 착공한 제3 중질유분해시설(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 Vacuum Residue Hydrocracker) 공사를 6월 완료하고 5개월여의 검증을 거쳐 12월1일 0시를 기해 100%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고도화처리(정유) 능력을 하루 15만5000배럴에서 국내 최대인 21만5000배럴로 끌어올렸고, 고도화비율 역시 20.7%에서 28.3%로 끌어올려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중질유분해시설은 벙커C유 등의 중질유보다 더 무거운 초중질유에 수소를 첨가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품질의 경질제품을 만드는 설비로 아시아 최초로 도입됐으며 세계적으로는 7번째로 적용된 최첨단 기술이다.

특히, 수소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황을 회수해 친환경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값싼 중질원유의 도입비중을 높여 원가 절감효과는 물론 값비싼 친환경 경질제품으로 전환해 전량 수출함으로써 6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획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내 정유기업의 고도화설비 비율은 SK에너지 15.4%(17만2000배럴), S-Oil 25.5%(14만8000배럴), 현대오일뱅크 17.4%(6만8000배럴) 등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1>